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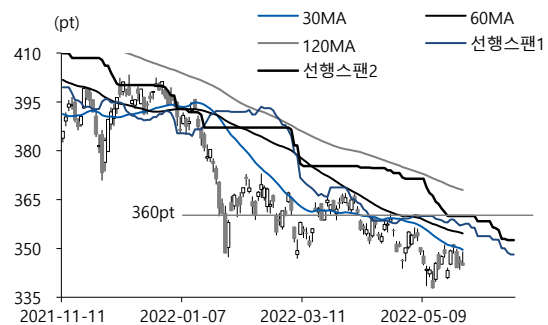


## 외국인 파생 포지션의 시사점

### 1. KOSPI200 지수 흐름과 외국인 옵션 포지션

- 최근 KOSPI200지수 반등 시도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이평선 회복 실패해 중장기 하락세 지속되는 모습.
- 외국인 옵션 포지션은 하락 시 수익 증가하지만 전저점 이탈 시 감소. 상승 시 수익 소폭 줄지만 360pt 돌파 시 본격적으로 수익 확대되는 구조.
- 단기적으로 횡보 내지 조정 가능성 높다고 보지만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형성되면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 우위로 보는 모습.

KOSPI200 일봉과 일목균형표 추이. 반등 시도 불구, 30일 이평선 저항 돌파하지 못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외국인 선물, 순매도 규모의 축소

- KOSPI200 선물 외국인 누적 순매도 지난 5월 11일 -61,470계약 수준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해 전일 기준 약 -51,000계약 기록.
- 과거 장기 바닥권에서 외국인 누적 선물 포지션 순매도 상태 유지하다가 점차로 줄이면서 상승 국면 전환 시 순매수로 전환.
- 외국인 개별주식선물 누적 순매수 포지션 역시 순매도 규모 줄이는 모습. 특히 5월 23일 이후 순매도 감소 규모 확대.

KOSPI200선물 가격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5월 11일 -61,470계약까지 순매도 늘었다가 축소되는 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1. KOSPI200 지수 흐름과 외국인 옵션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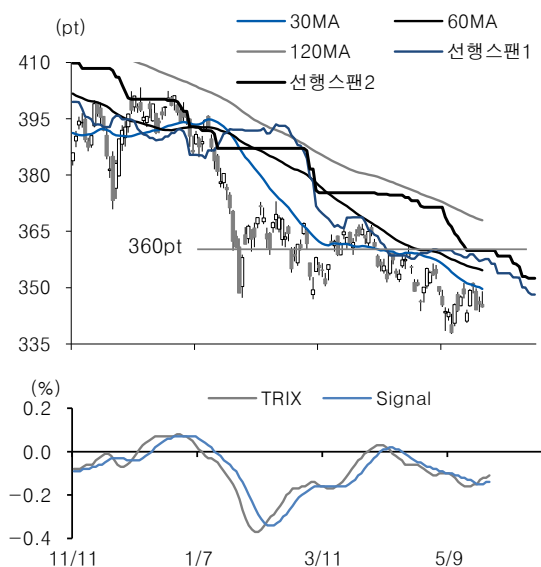
KOSPI200 지수가 5월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반등 시도를 보였지만 30일 이평선의 저항을 넘지 못한 가운데 정체 중이다.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 선인 360pt를 돌파해야 장기 하락 추세 변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지난 5월 만기 후 Check에서 추정한 외국인 옵션 포지션은 [차트2]와 같다. 현재 가격대에서 기초자산 가격 하락 시 수익이 증가하고, 335pt 아래로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구조다. 반면 상승 시에는 360pt 수준까지는 수익이 감소하고 그 보다 더 상승할 경우 빠르게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조정 내지는 횡보 가능성이 높지만 하락하더라도 5월 저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나오면 상승에 무게를 두는 포지션이라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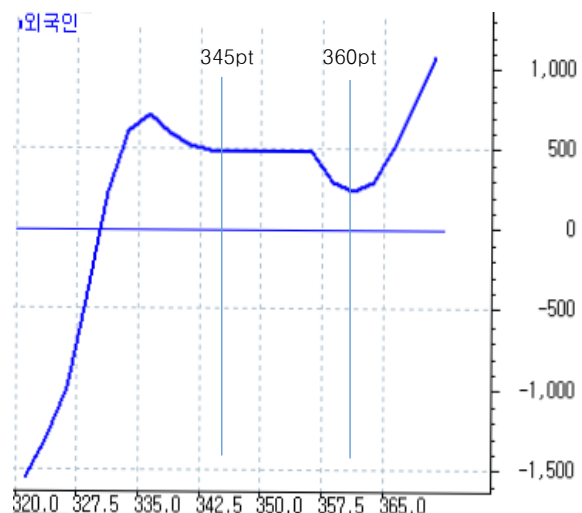
아직은 중장기 추세가 하락 중이고, 상승하더라도 360pt 수준의 저항은 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 옵션 포지션은 강한 방향성이 나타난다면 하락보다는 상승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차트1] KOSPI200 일봉과 TRIX, 일목균형표 추이. 반등 시도 불구, 30일 이평선 저항 돌파하지 못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PI200 옵션 외국인 포지션 추정치, 단기로 횡보 내지 조정 예상. 360pt 돌파 시 수익 본격 확대 가능.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외국인 선물, 순매도 규모의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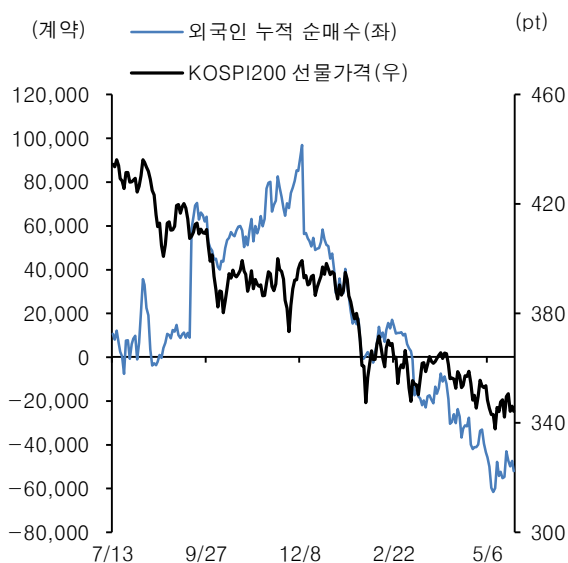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은 하락세가 제한되는 것에 대비하고 있다. 미니선물과 빅선물의 합계로 계산한 KOSPI200 선물 외국인 누적 순매수는 지난 5월 11일에 -61,470계약까지 증가했다가 전일은 약 -51,000계약까지 줄었다.

2015년 미니선물 거래가 시작된 후 외국인 누적 순매도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다소 줄었지만 추세 관점으로는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018년 말 저점대 형성 과정에도 의미 있는 상승 전까지는 매도 우위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개별주식선물 전체 포지션 역시 순매도를 기록 중이지만 그 규모를 줄이는 모습이다. 개별주식선물은 매월 만기가 도래하고 스프레드 거래가 누적 순매수 포지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시장의 추세를 추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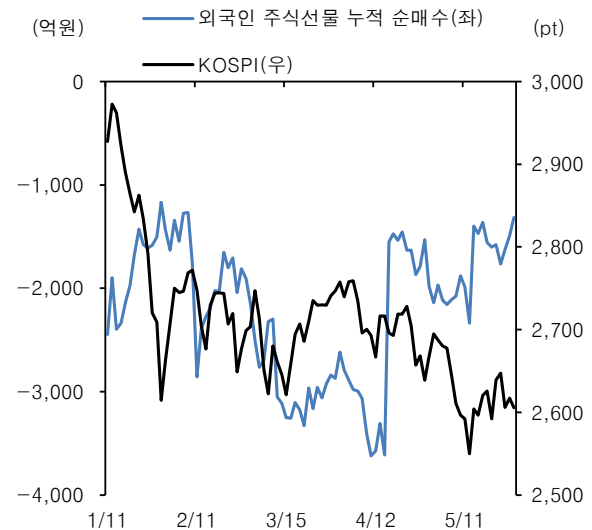
[차트4]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개별주식 선물 누적 순매수 포지션은 점차로 순매도 규모를 줄이는 모양이다. 스프레드 거래로 인한 추정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5월 23일 이후 순매도 규모 축소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차트3] KOSPI200선물 가격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5월 11일 -61,470계약까지 순매도 늘었다가 축소되는 중.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KOSPI 개별주식선물 외국이 누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순매도 규모 줄어드는 모습.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